

# 고유 명사와 자연종 명사의 지시\*

— 크립키의 논의를 중심으로 —

홍 창 성

## 목 차

I. 고유 명사의 지시	5. 고유 명사들이 포함된 동일성 진술
1. 기술론의 주장	II. 자연종 명사의 지시
2. 고유 명사의 고정적 지시	1. 자연종 명사의 고정적 지시
3. 가능 세계와 통세계적 동일성의 기준	2. 자연종 명사가 포함된 이론 진술
4. 지시 인과론	* 맷음말
	* 참고 문헌

## I. 고유 명사의 지시

언어는 세계를 지시함으로써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예는 고유 명사의 지시의 경우이다. 그것은 아마도 일반 명사나 술어, 문장 등의 경우와는 달리 고유 명사는 그 지시체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서 언어와 세계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에 대한 직선적이고 간단한 예를 제시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고유 명사의 지시는 지시 이론에 대한 시범 사례(test case)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지시 문제 일반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었다.<sup>1)</sup> 이런 이유 등으로 많은 학자들은 우리 언어에서 이름<sup>2)</sup>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산뜻한 그림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왔다.

고유 명사와 관련된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의미를 가지는가의 여부이다. 어떤 학자들은 이름은 지시체는 갖지만 의미는 갖지 않는다면서 고유 명사와 기술을 엄격히 구분할 것을 주장한다. 한편 이에 반대해서 이름이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은 이름을 일종의 축약된 기술로 간주한다. 그들에 있어서 고유 명사의 의미는 그것과 관련되

\*) 본고는 1990년에 발표된 석사 학위 논문의 일부임.

1) Donnellan(1972), p.358.

2) 본 논문에서의 이름이란, 크립키가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고유 명사를 의미한다.

는 기술에 의해 부여되며, 그것의 지시체는 그 기술들을 만족시키는 대상이다.

이제 이들 주장의 역사적 전개 순서에 따라 그 대립되는 내용들을 살펴 보겠다.

### 1. 기술론의 주장

밀(J.S.Mill)은 그의 「논리 체계」(System of Logic)에서 고유 명사의 지시에 관한 이론을 전개한다. 그에 의하면 고유 명사에는 내포(connotation)는 없고 단지 외연(denotation)만 있을 뿐이며,<sup>3)</sup> 고유 명사는 사람, 장소, 또는 사물을 단지 나타내기만하지 기술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밀은 고유 명사에는 아무런 내포도 없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다트머쓰(Dartmouth)”라는 이름의 예를 든다. 우리가 “다트머쓰”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영국의 어느 지역을 기술할 때, 그 지역은 다트 강의 하구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릴 수 있다. 그런데 다트강이 그 유로(流路)를 바꾸어서 다트머쓰가 더 이상 다트강의 하구에 놓여 있지 않게 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 지역을 “다트머쓰”라고 부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다트강의 하구에 놓여 있다는 것이 “다트머쓰”라는 이름의 의미의 부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트머쓰가 다트강의 하구에 놓여 있지 않다고 말한다고 해도 모순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유 명사는 내포는 없이 그것의 외연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밀의 견해는 몇가지 심각한 난점에 부딪히게 된다. 먼저 ① 밀은 고유 명사가 외연을 갖고 있다고는 했으나 그 외연을 어떻게 찾아서 집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다. 또한 ② 동일성 진술에 관련된 문제들도 밀의 이론이 가진 난점들로 지적된다. “다산은 다산이다.”와 “다산은 정약용이다.”와 같은 동일성 진술들의 경우, “다산”과 “정약용”的 지시체는 같다. 밀의 입장에서라면 동일한 지시체를 갖는 고유 명사가 포함된 두 진술은 그 인식적 값어치(cognitive value)도 같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다산은 다산이다.”는 진술은 단순한 동어 반복에 불과하지만 “다산은 정약용이다.”는 진술은 다산이 정약용이라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래서 두 진술은 그 인식적 값어치가 다르다. 그러나 밀의 단순한 지시론으로는 이것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한편 ③ 밀의 지시론은 존재 진술(existential statement)과 관련해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봉착한다. 예를 들어 “고르바초프”라는 고유 명사가 단지 지시적 기능만을 갖는다면, “고르바초프는 존재한다.”는 진술은 단순히 동어 반복에 불과한 분석적 진술이 되어 버린다. 왜냐하면 “고르바초프”라는 고유 명사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자면 “고르바초프”는 그것이 지시하는 어떤 대상이 존재함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홍길동”처럼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홍길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정 존재 진술(negative existential statement)은 밀의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귀결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그것의 지시체가 존재하는 것인데, 이런 진술의 경우는 존재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진술은 우리가 유의미하면서도 참인 진술로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밀의 입장에서는 논

3) Mill(1867), p.20.

리적으로 모순이라고 해야 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마는 것이다.<sup>4)</sup>

위와 같은 문제점들은 프레게와 러셀<sup>5)</sup>로 하여금 고유 명사에도 내포적, 기술적 의미가 있다는 기술론을 주장하게 하였다. 기술론자들도 물론 고유 명사의 지시적 기능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점은, 앞에서 살펴 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유 명사에는 기술적 의미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레게와 러셀은 밀과는 달리 고유 명사의 지시체가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해 분명한 설명을 제시한다. 고유 명사는 그것과 관련된 기술들을 충족시키는 대상을 지시체로 갖는다는 것이다 - 밀의 이론이 가진 첫째 문제 해결. 이때 기술들을 충족시키는 대상이 없다면 그 고유 명사의 지시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런 대상이 있으면 지시체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로써 존재 진술과 부정 존재 진술의 문제도 손쉽게 해결된다 - 밀에 있어서의 세번째 문제의 해결. 한편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는 두 고유 명사는 그것에 관련되는 기술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이 포함된 동일성 진술이 정보적(informative)일 수가 있는 것이다 - 밀의 두번째 문제 해결.<sup>6)</sup>

프레게와 러셀은 일상적 고유 명사의 의미를 어떤 적절한 한정 기술(definite description)의 의미와 동일시한다.<sup>7)</sup> 그리고 사람마다 어떤 고유 명사와 관련시키는 기술이다를 수 있으므로 화자에 따라 이름이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도 한다. 그러면서 지시체가 갖기만 하면 관련 기술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무시해도 좋다고 한다. 그러나 화자에 따라 이름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은 아무래도 받아들이기가 불편한 견해이다. 그래서 프레게와 러셀의 노선을 따르는 학자들은 이름의 의미를 그 지시체에 대해 참인 모든 기술들의 연언(連言:conjunction)으로 하면 이런 난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럴 경우, 고유 명사의 지시체에 대해 참인 진술은 모두 분석적이 되며, 거짓인 진술은 모두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

위와 같은 난점을 피하면서 기술론이 가진 모든 장점을 갖춘 세련된 형태의 이론이 전개되었는데, 크립키는 그것을 '다발 기술론(cluster theory)'이라고 부른다. 비트겐슈타인과 써얼에 따르면 고유 명사와 기술들 사이의 관계는 느슨하여서, 고유 명사의 의미와 지시체는 기술들의 연언이 아니라 선언(選言:inclusive disjunction)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고유 명사의 지시체에 대한 참이거나 거짓인 진술이 각각 분석적 참이거나 논리적 모

4) 이 외에도 지시 관계가 불투명한 문맥(referentially opaque context)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지적되어 왔다.

5) 여기서는 일단 러셀을 기술론자로 분류한 크립키의 해석을 받아 들이기로 한다. 크립키는 러셀이 진정한 고유 명사라고 강조한 논리적 고유 명사(logically proper name)에 대한 그의 견해를 그의 고유 명사에 대한 주된 주장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반대로 그가 축약된 기술이라고 보며 진정한 고유 명사로부터 제외시킨 일상적 고유 명사에 관한 그의 비판적 논의를 오히려 그의 주장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6) 그런데 크립키는, 프레게와 러셀의 주장이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고는 있으나 분명히 틀린 견해라고 한다. [Kripke(1980),p.29.]

크립키가 프레게와 러셀 등의 기술론자들의 노선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밀의 이론이 합축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가는 앞으로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차차 밝혀질 것이다.

7) 그러나 의미와 한정 기술에 대한 두 사람의 견해는 차이가 있다.

순에 빠질 염려가 없게 된다.<sup>8) 9)</sup>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살펴 본대로, 기술론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관련된 다발 기술이나 단일 기술이 그 이름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의미론으로서의 기술론이 그 첫 째고, 기술이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그 기술을 만족시키는 대상을 찾아서 확인해 줌으로써 이름의 지시체를 결정한다는 지시론으로서의 기술론이 그 둘째다.<sup>10)</sup> 그런데, 크립키는 기술론이 지시론으로서뿐만 아니라 의미론으로도 해석되어야만 앞에서의 동일성 진술이나 존재 진술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sup>11)</sup> 그래서 그는 기술론이 이름과 그것에 관련된 기술들을 동의어로 취급한다고 간주한다.

## 2. 고유 명사의 고정적 지시

기술론의 가장 세련된 형태는 앞절에서 살펴 본 써얼의 다발 기술론이다. 그러나 크립키는 그것이 기술론의 근본 전제들을 토대로 하고 있는 이상 고유 명사의 작동 방식에 대한 올바른 설명일 수는 없다고 비판한다. 그래서 기술론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이름 작동 방식의 예를 들어 가며 자신의 주장을 전개해 나간다.

크립키에 의하면, 고유 명사는 그것에 부여될 수 있는 의미나 기술들에 관계없이 동일한 지시체를 지시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통상 우리가 그에 대해 알고 있는 속성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는 반사실적 상황<sup>12)</sup>을 생각할 수 있다. 그는 철학을 공부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으며, 또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었던 것은 아니다. 비록 철학을 연구하지 않았고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다고 해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리스토

- 
- 8) 그런데 써얼은,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에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속성들의 선언의 논리적 합(合)을 갖는다는 것이 필연적인 사실이라고 제안한다: 어떤 대상도 이런 속성들 중의 최소한 몇몇을 갖지 않고서는 “아리스토텔레스”的 지시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Searle(1958), p.217. 하지만 크립키는 이러한 입장에 반대한다. 그에 의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일반적으로 그에게 부여되는 속성들을 하나도 가지지 않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것이다.
- 9) 다발 기술론의 입장에서도 어떤 단어의 의미가 경우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러나 다발 기술론자는 이것이 바로 우리 언어의 근본적인 특성이라고 한다.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단어는 확정된 일의적(一義的)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각 단어가 쓰이는 맥락에 따라 단지 ‘가족 유사성(family resemblance)’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 10) 도넬란은 기술론에서 대상을 확인하는 기술의 두 가지 원칙을 말하고 있다. 첫째로, 이름의 사용자는 확인 기술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 고유 명사의 지시체는, 만약 하나가 있다면, 확인 기술들의 충분한 수를 유일하게 만족시키는 대상이다 -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대상이 없거나 하나 이상이면 그 이름은 지시체를 갖지 않으며, 그 이름이 들어간 부정 존재 진술은 참이 된다. Donnellan(1972), p.360.
- 그런데 도넬란은 이 두 원칙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의 역사적 설명 이론(the historical explanation theory)으로 밝혀 나간다.
- 11) Kripke(1980), p.32-3.
- 12) 반사실적 상황과 가능 세계에 관한 논의는 다음 절(節)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텔레스가 아니었을 수는 없는 것이다.<sup>13)</sup>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름으로 모든 가능 세계에서 동일한 아리스토텔레스를 가리킨다.

또 다른 예를 살펴 보자. 우리는 산수의 불완전성을 증명한 사람이 고델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산수의 불완전성을 증명한 사람은 고델이 아니라 슈미트인 반사실적 상황을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우리가 산수의 불완전성의 증명자로서의 고델을 지시할 때 실제로는 슈미트를 지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비록 고델이 진정한 증명자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고델”이라는 이름으로 슈미트가 아니라 고델을 지시하는 것이다. 이렇듯 고유 명사는 그것에 부여되는 기술들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동일한 대상을 지시한다.<sup>14)</sup>

위와 같은 예들을 통해 크립키는 기술론의 근본 입장들을 비판한다.<sup>15)</sup> 화자가 이름의 지시체에 대해 알고 있는 속성(또는 기술)이 실제로는 잘못되어서 다른 사람에 해당되는 것 이거나 아니면 아무에게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름은 그 지시체를 지시한다.<sup>16)</sup> 그러므로 기술론의 지시론적 측면의 주장들이 거부되게 된다. 한편 기술이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기술이 표현하는 속성들이라는 것들은 반사실적 상황에서는 그 지시체가 갖지 않을 수도 있는 우연적인 것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론의 의미론적 측면의 타당성도 또한 거부된다.<sup>17)</sup>

크립키는 어떤 지시어가 임의의 대상이 존재하는 모든 가능 세계에서 동일한 그 대상을 지시할 때, 그 지시어를 고정 지시어(rigid designator)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그에 의하면 고유 명사는 고정 지시어라는 것이다. 논의의 목적상 기술론에 대한 여러 비판을 통해 고유 명사가 기술과는 상관없이 어떤 대상을 고정적으로 지시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지만, 실제로 그는 고유 명사가 고정 지시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한다.<sup>18)</sup>

- 13) 이 논증은, 이름이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관계가 변화할 가능 세계적 또는 형이상학적 가능성이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고유 명사의 지시에 있어서의 고정성을 주장하는 논증은 통상 양상 논증(modal argument)이라고 불린다. 고유 명사는 어떠한 반사실적 상황에서도 원래의 대상을 고정적으로 지시한다는 것이다. Salmon(1981),p.24-7.
  - 14) 이 예에서는 고유 명사가 화자가 부여하는 관련 기술과는 상관없이 그 대상을 지시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기술론을 비판하는 논증을 통상 의미론적 논증(semantical argument)이라고 한다. Salmon(1981),p.30.
  - 15) Kripke(1980),p.106-7.
  - 16) 기술과는 상관없이 올바른 지시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크립키가 제시한 견해가 지시에 대한 인과적 그림이다. 이에 대해서는 I 장 4절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 17) 도넬란은 자신의 기술론에 대한 비판이 크립키의 입장과 비슷하다고 하면서 [Donnellan (1972),p.356.] , 다음의 둘을 논증해 나간다. ①고유 명사는 확인 기술의 원칙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지시체를 가질 수 있다. ②조건들이 충족된 경우에도, 확인 기술의 원칙에 따르자면 지시체가 되어야 하는 대상이 참된 지시체가 될 필요는 없다. [Donnellan(1972),p.356.]
  - 우리는 ①에서 고유 명사의 지시를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며, ②에서는 기술들이 고유 명사의 지시를 결정하는 데 충분하지도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8) Kripke(1980),p.49.
- 고유 명사가 모든 가능 세계에서 동일한 것을 지시하는 고정 지시어라는 점에 대해서는 현대 철학자들의 대부분이 찬성한다. Martin(1987),p.160.

그런데 고유 명사에 의해 지시되는 대상이 모든 가능 세계에서 존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크립키가 의미하는 바는 문제되는 대상이 존재하는 모든 가능 세계에서, 그 대상이 존재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고려되고 있는 고유 명사를 그 대상을 지시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그 고유 명사가 지시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렇게 지시되는 문제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sup>19)</sup> 이름은 지시체가 존재하는 모든 가능 세계에서 현실 세계의 지시체를<sup>20)</sup> 고정적으로 지시한다.

한편 기술은 고정 지시어가 아니다. 우리는 “소련의 초대 대통령”이라는 기술구로 고르바초프를 지시할 수 있다. 그런데 소련 군부가 구데타를 일으켜서 고르바초프를 축출하고 대신 리가초프를 소련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을 반사실적 상황을 상상해 보자. 그러면 “소련의 초대 대통령”이라는 기술구는 고르바초프가 아니라 리가초프를 지시할 것이다. 이와 같이 기술구는 반사실적 상황에서 그 지시체가 변할 수도 있는 비고정 지시어다. 크립키는 고유 명사는 고정 지시어이고 기술구는 비고정 지시어라고 하면서, 이름과 기술의 구분을 엄격히 할 것을 주장한다.<sup>21) 22)</sup>

19) Kripke(1971),p.79.

20) 고유 명사의 현실 세계의 지시체가 가능 세계의 지시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21) 그런데 “The x such that Fx”的 형태로 되었다고 해서 모두 기술은 아니다. 예를 들어 “신성 로마 제국”은 신성하고 로마와 관련된 제국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떤 게르만 연방을 지시하기만 하는 고유 명사인 것이다.

22) 도넬란은 한정 기술에는 속성적 용법(attributive use)과 지시적 용법(referential use)이 있다고 주장한다. [Donnellan(1966),p.46-53.] 속성적 용법이란 화자가 누구 또는 무엇이 그러 그려하다(the so-and-so)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이때 화자는 기술에 맞는 누구 또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한편 지시적 용법이란 화자가 청자로 하여금 그가 말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물을 집어내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그 기술을 사용한다. 여기서 기술은 단순히 청자의 주의를 끄는 도구일 뿐이다.

예를 들어 “스미쓰의 살해범은 미쳤다.”라는 진술에서 “스미쓰의 살해범”이라는 한정 기술은 두 가지로 사용될 수 있다. 먼저 우리는 평소 인품이 훌륭한 스미쓰가 무참하게 살해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스미쓰의 살해범이 누구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스미쓰의 살해범은 미쳤다.”고 말할 수 있다. 이때 “스미쓰의 살해범”이란 한정 기술은 속성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위의 진술은 “그가 누구이든지 스미쓰를 살해한 자는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편, 스미쓰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법정에 선 사람이 말을 횡설수설하고 이상한 몸짓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가리키면서 “스미쓰의 살해범은 미쳤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스미쓰의 살해범”이라는 한정 기술은 청자의 주의를 끌어 그 살인 혐의자를 지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런데 나중에 그 혐의자는 실제로는 스미쓰를 살해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질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지시적 용법에서는 틀린 기술로도 올바른 지시가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지시되는 사람 또는 사물에 대해 어떤 한정 기술이 참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지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시적 사용의 성공은 단순히 화자가 그가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또는 사물에 청자의 주의를 이끄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어떤 한정 기술이 지시적으로, 아니면 속성적으로 사용되는가의 여부는 특정한 경우마다의 화자의 의도의 합수이

### 3. 가능 세계와 통세계적 동일성의 기준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크립키의 고정 지시어 이론은 그의 가능 세계에 대한 견해와의 밀접한 연관 아래서 진행된다. 크립키에 의하면 가능 세계란 우리가 거기에 결합시키는 기술적 조건들에 의해 주어지는 세계다.<sup>23)</sup> 다시 말해 그것은 약정되는(stipulated) 세계이지, 예를 들어 성능 좋은 망원경에 의해 발견되는 세계같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가능 세계를 다루는 철학자는 우리의 가능성에 대한 직관이 지지하는 것 이상으로 그의 기술적 장치를 너무 멀리 밀고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가능 세계는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써,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만 약정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언어를 올바로 사용하는 사람이 직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반사실적 상황은 가능 세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가능 세계는 그것이 먼저 주어지고 그에 따라서 현실적인 사건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현실적인 사건이 주어지고 이에 따라서 가능 세계가 구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 세계의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상태에 대한 진술을 단 하나만 반사

다.

한편 러셀은 진정한 고유 명사는 지시만 할 뿐 그것에 아무런 속성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진정한 고유 명사는 사물 자체를 직접 지시하지 기술에 맞는 것을 찾아서 지시하는 것 이 아니다. 하지만 그는 한정 기술에 지시적 용법이 있음을 전적으로 무시한다. 그러나 도넬란은, 위에서 보았듯이 지시적으로 사용된 한정 기술은 진정한 고유 명사의 기능 수행에 러셀이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접근해 있다고 주장한다.Donnellan(1966),p.65.

그러나 크립키는 지시적으로 사용된 기술이 고유 명사와 같이 고정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왜냐하면, 만약 기술이 잘못되었음이 밝혀진다면 지시적으로 사용된 한정 기술의 지시체가 그 다음부터는 바뀌겠지만(-또는 한정 기술을 바꾸거나) 고유 명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시적으로 사용된 한정 기술을 고유 명사처럼 보아서는 안 된다. Kripke(1977),p.254.

크립키는 도넬란의 주장은 언어 행위(Speech Act) 이론과는 관련이 있지만 의미론이나 진리 조건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다고 한다. 도넬란이 든 예가 보여주듯이, 화자는 적절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의미론적 지시체가 아닌 다른 것들을 지시할 수도 있다 - 여기서 의미론적 지시체란 이름의 경우에는 이름붙여진 사물이고, 기술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그 기술을 충족시키는 사물이다. 그런데 크립키는 '기술의 지시체'라는 말을 화용론적으로 가 아니라 이렇게 의미론적으로만, 즉 한정 기술의 조건들을 유일하게 충족시키는 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만 쓰겠다고 한다 [Kripke(1980),p.25.주석3]. 따라서 본 논문에서 말하는 기술의 지시체도 의미론적 지시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 23) 가능 세계를 논의하는 사람들 간에는 가능 세계가 과연 무엇인지에 관해 의견이 수렴되고 있지 않다. 하아크는 세 개의 다른 견해를 구분하고 있다. ① 힌티카(Hintikka)의 방법: 가능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최대한으로 무모순적인 문장들의 집합에 관한 이야기와 동일시하는 방법. ② 위에서 살펴 본 크립키의 방법. ③ 루이스(D.K.Lewis)의 실재론적 방법: '가능 세계'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의 언어와 사유와는 완전히 독립되어 실제로 존재하는 추상적 실재들의 세계로서 받아들이는 방법.

실적 상황에 대한 진술로 대치하면 가능 세계가 얻어질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 어떤 사건의 반사실적 상황을 완전히 기술할 수는 없으며,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반사실적 상황은 현실의 사실들과 적절한 방식으로 다른 한도 만큼만 실제적으로 기술되면 충분한 것이다; 따라서 반사실적 상황이란 고려되고 있는 문제에 적절한 세계의 특성들에 제한된 소규모 세계 또는 소규모 사태로서 생각될 수 있다.<sup>24)</sup> 현실 세계가 가능 세계에 우선하는 것 이므로, 다른 가능 세계에 어떤 대상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현실 세계의 대상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일각수(unicorn)나 용(龍)은 현실 세계의 대상이 아니므로 가능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들이 어떤 상황 아래서 존재할 것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크립키는 고유 명사가 모든 가능 세계에서 동일한 대상을 고정적으로 지시한다고 했는데, 만약 예를 들어 “고르바초프”라는 이름이 아무런 기술적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이름이 모든 가능 세계에서 동일한 인물을 지시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혹자들은 통세계계적 동일성의 기준<sup>25)</sup>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크립키는 통세계적 동일성의 기준 문제를 제시하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잘못된 것으로 본다. 첫째, 통세계적 동일성의 문제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즉 이름이 고정적으로 지시하기 위해서 먼저 통세계적 동일성의 기준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고르바초프”가 고르바초프를 고정적으로 지시하기 때문에 비로소 그에게 다른 가능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약정할 수 있다. 그래서 통세계적 동일성 확인은 처음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가능 세계가 발견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로써 규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둘째, 이러한 문제 제기는 가능 세계를 순수히 질적으로(qualitatively) 주어진다고 보는

24) 크립키는 양상 논리에 대한 의미론을 얻고자 표준 모형 구조(normal modal structure)를 도입한다. 그 모형 구조는 세 순서쌍 <G.K.R>로 구성된다. 여기서 K는 공집합이 아닌 집합, R은 K에서의 재귀적 관계, G는 K의 원소( $G \in K$ )이다. 직관적으로 K는 모든 가능 세계들의 집합이고 G는 현실 세계를 나타낸다. 그리고 H1과 H2가 두 세계라면, “H1 R H2”는 직관적으로 “H2는 H1에 관련해서 가능하다”를 의미한다. 즉 H2에서의 참인 모든 명제는 H1에서 가능하다. Kripke(1963a), p.70., (1963b), p.64.

위와 같은 개념이 제공해 주는 직관은, 우리의 현실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 세계와 적절히 관련되어 있는 사태들만이 다른 가능 세계에서는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모순되지 않는다. Marciszewski(1981), p.235.

25) 통세계적 동일성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에도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하아크의 분류에 따르면, ① 개체가 가진 본질적 속성으로 다른 가능 세계에서도 그 개체를 확인한다는 견해. ② 크립키의 견해. ③ 플랜팅가(Plantinga)는 동일성의 기준이 주어져야 한다는 조건은 불가능한 것이며 또 바랄 수도 없는 요구라고 한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런 제시하기 어려운 기준이 없이도 대상을 찾아낼 수 있다면서 문제 자체의 어려움을 부인한다. ④ 루이스는 동일한 개체가 다른 가능 세계들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통세계적 동일성의 문제란 해당초 생겨날 수도 없다.

것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고르바초프”的 지시체는 어떤 성질들의 집합과 동일하며, 이러한 성질들은 고르바초프에 대한 통세계적 동일성의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고르바초프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성질들이 모든 가능 세계에서 고르바초프를 확인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우리의 직관에 어긋난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서는 “소련의 초대 대통령”이라는 성질로 고르바초프를 확인할 수 있지만 어떤 가능 세계에서는 소련의 초대 대통령이 리가초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크립키는 이 세계에서 어떤 대상을 확인하는 데 사용된 성질이 다른 가능 세계에서 그 대상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지 않으며, 또 그럴 필요도 없다고 한다. 우리는 먼저 대상을 지시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묻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통세계적 동일성의 기준을 찾기 위해 여러 가능 세계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에 주어져 있고 또 그것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으로부터 출발하여 다른 상황에서는 그 대상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름의 지시체가 가질 수도 있는 성질들과 관련된 어떠한 기술적(descriptive) 기준들과도 상관없이 통세계적 동일성 확인이 우리가 대상을 지사하는 처음 순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sup>26)</sup>

#### 4. 지시 인과론

크립키에 의하면 우리는 속성으로 대상을 끄집어 내어 지시체를 결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물음에 답하고자 그는 기술론을 이용한 지시론보다 더 나은 지시론을 보여 주고자 대안적 ‘그림(picture)’으로서의 지시 인과론<sup>27)</sup>을 제시한다. 크립키에 의하면 화자는 그의 이름 사용과 최초의 명명식 사이에 그 이름에 의해 지시되는 대상을 연결시켜 주는 적절한 의사 소통의 고리가 있으면 하면, 그 화자는 아무런 기술적 조건들과도 상관없이 그 이름을 올바로 사용한다. 즉 화자의 지식이나 믿음과는 관계없이 적절한 인과 고리만 있으면 올바른 지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먼저 대상에 대한 최초의 명명식이 수행된다. 여기서 대상은 직접적 지시(ostention)에 의해서, 또는 기술에 의해서 이름의 지시체로 고정될 수 있다.<sup>28)</sup> 이렇게 지시체가 고정된 후에 이름은 사람들의 의사 소통의 과정을 통해 고리에서 고리로 전달된다. 그런데 이때 이름을 전달받는 사람은 그 이름이 그 이름을 전해 준 사람의 지시체와 같은 지시체를 갖

26) 실제로 크립키는 통세계적 동일성 확인의 문제는 ‘가능 세계’의 개념을 오해했기 때문에 나온 사이비 문제일 뿐이라고 한다. 그래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 ‘가능 세계’라는 말보다는 ‘세계의 가능한 사태’, 또는 ‘반사실적 상황’이라는 용어가 더 나을 것이라고 한다. Kripke(1980), p.15.

27) ‘인과론(The Causal Theory)’라는 명칭을 최초로 부여한 사람은 에반스이다. [Evans(1973), p.192.] 크립키는 이론은 언젠가는 거짓으로 드러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형태의 이론을 제시하는 데는 반대하며, 자신의 견해는 보다 나은 설명을 제공하고자 제시한 그림일 뿐이라고 한다. [Kripke(1980), p.63,93.]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크립키의 견해를 ‘지시 인과론’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28) 기술에 의해 지시체가 고정된 명명식의 경우는 예를 들어 해왕성의 경우이다. Kripke(1980), p.96. 각주42.

도록 의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을 듣고 이것을 애완용 돼지의 이름으로 결정했다면 나는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기술들(또는 속성들)에 의해 이름의 지시체를 고정할 경우에도, 우리는 이름을 기술들과 동의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명명되는 대상을 고정적으로 지시하기 위해 기술들을 사용할 뿐이다.<sup>29)</sup> 그리고, 최초의 명명에 있어서는 어떤 대상 a가 가진 우연적 속성에 관한 기술에 의존하는 수도 있지만, 일단 그 지시체가 고정 되면 “a”는 인과적 연쇄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것이고, 그 사람은 아무런 관련 기술을 알지 못해도 “a”만으로 그 지시체를 가리킬 수 있다. 우리는 예를 들어 “키케로”라는 명사의 지시체를 어떤 기술들을 사용함으로써 고정시킨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이 지시체를 고정하면 우리는 “키케로”라는 이름을 바로 그 사람을 고정적으로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래서 “키케로”라는 이름을 전해 들은 어떤 사람이 키케로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이 전혀 없거나 잘못된 기술적 내용들이더라도, 그는 “키케로”라는 이름으로 키케로를 올바로 지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음에 지시체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한 기술들을 이름과 동의어로 보아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만약 그 기술들이 이름과 동의어라면, 잘못된 기술적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키케로”라는 이름으로 키케로를 지시할 수 없겠기 때문이다.

이름과 관련한 우리의 지시 행위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바의 내용에 의지하지 않고, 그 이름이 우리와 같은 언어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도달하였는가의 역사 같은 것에 의존한다. 우리는 그러한 인과 고리의 역사를 추적함으로써 지시체에 도달하는 것이다.<sup>30)</sup> 예를 들어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역사상의 실제 인물을 지시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자. 고유 명사 “이순신”은 최초의 명명식에 의해서 이순신의 이름이 된다. 즉, 그의 부모가 자신들의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이순신”이라고 명명했다면, 이 사건에 의해서 “이순신”的 지시체는 이순신으로 고정된다. 그 이후 지시체가 고정된 “이순신”이라는 고유 명사는 언어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 나가 “이순신”이라는 이름 사용의 인과적 고리가 형성된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의 화자들도 그렇게 역사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인과적 고리에 의해 “이순신”이라는 이름으로 이순신을 지칭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인과론자들은, 화자가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화자의 발화를 그 대상의 최초의 명명식에까지<sup>31)</sup> 연결시키는 의사 소통의 인과 고리

29) Kripke(1971),p.93-4.

30) 써얼은 학생들에게 이미 쓰이고 있는 고유 명사의 대상을 확인시켜 주는 상황을 설명한 바 있는데, 여기서 그는 직접적 지시 또는 기술에 의해 고유 명사의 대상을 확인한다고 말하고 있다. Searle(1958), p.213.

31) Kripke(1980),pp.94-5,106.

32) 한편 스트로슨도 지시 차용의 역사를 추적하는 것에 대해 말한 바가 있다. 그런데 그는 우리가 누구로부터 지시를 얻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크립키는 스트로슨과는 달리 우리가 어떤 이름을 전달해 준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또 인과 고리의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하고도 그 인과 고리가 적절하기만 하면 지시를 올바로 할 수 있다고 한다. 크립키에 의하면, 우리는 예를 들어 괴델에 대해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모르고도, 심지어는 잘못 알고도, “괴델”로써 괴델을 지시할 수 있다.

33) 도넬란은 인과 고리가 반드시 명명식에까지 연결된다는 견해에 반대한다. 그는 이름이 꼭 이

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직접적 지시에 의하든지 또는 기술에 의하든지 일단 지시체가 고정되면 그 지시체는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항상 동일하게 지시될 수 있다. 즉 화자에 의한 이름의 옮바른 사용은 지시되는 대상에 관한 지식이나 믿음에 관계없이 그 이름이 전달되는 적절한 인과 고리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sup>36)</sup>

그런데 크립키가 제시하고 있는 '그림'은 고유 명사의 작동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불충분한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sup>37)</sup> 먼저 명명식부터가 순수히 인과론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기술을 이용한 지시체 고정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직접적 지시에 의한 지시체 고정의 경우도 역시 기술의 개념 아래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38)</sup> 그렇다면 아무리 크립키가 이 둘을 지시를 고정시키는 우연적 수단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둘을 통하여 지시를 고정시키는 한 인과론의 순수성이 손상당하는 것이다. 또 어떤 대상을 직접 지시하며 이름을 불일 때 우리는 우선 그 대상을 감각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인과론자들도 인정한다.<sup>39)</sup> 그런데 이런 명명식에서 명명자가 직접적 지시로써 명명하고자 의도하는 대상을 그 명명식에 참가한 중인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가? 만약 명명자가 손가락으로 어린 아이를 가리켰다면, 그가 어린 아이를 지시하고 있는 것이지 어린 아이의 옷에 그려진 꽃 무늬를 지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중인은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는가? 크립키는 이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명명식의 상황에 대한 설명은 이미 오래전부터 써온에 의해 제시되어 있었다. 그는 우리가 고유 명사를 이용하여 어린 학생들로 하여금 대상을 지시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학생들이 고유 명사에 관련된 일반적 관습들(conventions)을 이해한다고 가정하면서, 대상을 확인(identify)하고 어떤 단어가 그 대상의 이름이라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린 학생들일지라도 교사가 어떤 대상을 지시할 때 그 대상을 옮바로 확인하게 해 주는 관습들을 이해할 인식적 능력이 있는 것이다.<sup>40)</sup> 그런데 이

---

런 식으로 우리 언어에 도입될 필연성은 없다고 한다. [Donnellan(1974), p.233.] 예를 들어 별명같은 것은 어떤 의식이 없이도 지시체가 고정되어 이름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비판은 크립키가 말하는 '명명식'이라는 것을 너무 문자 그대로 해석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별명도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가운데 누군가에 의해 최초로 발화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을 통해 퍼져 나갔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도 느슨한 의미에서의 '명명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4) 도넬란도 그의 '역사적 설명 이론'을 통해 크립키와 비슷한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먼저 ① 개체와 화자 간에 이름 사용의 역사적 연결이 없으면, 어떤 개체에 대한 화자의 기술들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 개체는 지시체가 아니다. ② 비록 화자의 기술들이 그 자체만으로 개체를 뽑아내지 못하더라도 이름과 개체 사이에 어떤 역사적 연결이 있으면 그것은 그 개체를 지시체로 확인해 준다. Donnellan(1974),p.231.
- 35) 예를 들어 에반스는 크립키가 명명식과 인과 고리의 형성이 상황적 맥락을 무시한 채로도 가능한 것처럼 주장한 것에 대해 '마술적(magical)' 설명이라고 비판한다. Evans(1973),p.209.
- 36) 이 점은 크립키도 인정하고 있다. [Kripke(1980),p.96. 각주42.]
- 37) Devitt(1981),p.27.
- 38) Searle(1958),p.213.
- 39) 리스(Rhees)는 지시는 관습(conventions)에 관련해서만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 지시 행위를

러한 통찰은 써얼 이전에도 이미 비트겐슈타인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었다. 즉 우리 인간의 공통된 원초적 삶의 형식이, 때로는 거기에 문화적 삶의 형식까지 가세해서, 명명식에서 누가 무엇을 지시한다는 것을 확오없이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삶의 형식의 일치와 같은 요소가 명명식의 상황에 개입하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올바른 명명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크립키는 이러한 요소들을 언급하지 않고 단지 명명식이 가능하다고만 하고 있다.

이름이 인과의 고리에 의해 전달되어 대상을 고정적으로 지시한다는 주장도 우리들 삶의 형식에 있어서의 어떤 일치를 배제하고서는 설명될 수 없다. 실제로 크립키 자신의 인과 연쇄에 대한 설명은, 써얼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순수하지는 않다.<sup>40)</sup> 왜냐하면 이름을 전해 받은 사람은 그 이름을 전해 준 사람과 같은 지시체를 지시하도록 그 이름을 사용하고자 의도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지시를 하도록 의도함으로써 실제로 올바른 지시가 가능한 것은 우리의 의도가 어떤 마술적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써얼식으로 말하면, 원화자(原話者)와 이름을 전해 받은 사람의 지향적 상태의 그물(network)과 배경의 일치가 있기 때문이다.<sup>41)</sup> 그리고 이러한 견해 역시 비트겐슈타인의 삶의 형식의 일치라는 개념속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육체적·정신적 삶의 형식의 일치와 같은 문화권에서 살아왔기에 형성된 공통된 삶의 형식의 일치에 의해, 전해 받은 이름의 지시체를 전해 준 사람의 지시체와 아무런 문제없이 동일하게 가리킬 수 있는 것이다.

고유 명사의 고정적 지시 현상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형식은 어떤 마술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공동 생활을 하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 내는 원초적이면서도 문화·상대적인 공통된 살아가는 양식<sup>42)</sup>으로서, 우리는 매일 매일의 생활에서 이러한 형식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고유 명사는 이렇게 공통된 삶의 형식에 의해 그 지시가 올바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애당초 인과 고리를 통해 고유 명사의 전달이 가능한 것도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고유 명사를 전달해 준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인식 능력에 있어서의 어떤 일치가 없다면 전달의 인과 고리는 처음부터 생겨날 수도 없다. 이때 인식 능력에 있어서의 일치란 삶의 형식의 일치 중의 하나인 것이다.

한편, 크립키의 지시 인과론에 대한 구체적인 반례들이 많이 제시되었다. 그 중의 하나로, 에반스가 예로 든 “마다가스카르”의 지시의 경우 같은 것은 크립키의 지시 인과론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이다. “마다가스카르”는 원래 아프리카 대륙의 어느 지방에 대한 이름이었는데, 이 이름을 원주민으로부터 전해 들은 마르코 폴로는 그것을 아프리카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어떤 섬을 지시하는 데 사용했다. 그런데 마르코 폴로는 원주민이 지시하는 것을 지시하고자 의도했을 것이므로 크립키가 요구하는 조건은 만족했다. 그러나 결

이해해 줄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헛된 의식(idle ceremony)’이 되어 버린다. Rhees(1986), p.249.

40) Searle(1983), p.235.

41) Ibid., p.259.

42) 삶의 형식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는 이명현(1983), 이명현(1984)을 참조.

과는 전혀 다른 지시체를 지시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지시 인과론의 입장에서는 설명하기 곤란한 문제이다. 그런데 마르코 폴로가 원래의 지시체와는 전혀 다른 지시체를 가리키게 된 것은 원주민과 마르코 폴로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삶의 형식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같은 언어 공동체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떤 말을 사용하는 삶의 형식이 다르면 같은 말이라도 다른 대상을 지시하게 된다. 하물며 마르코 폴로의 경우에는, 그가 “마다가스카르”로써 원주민의 지시체를 가리키고자 아무리 간곡히 희망했더라도, 그가 원주민의 삶의 형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주민과 동일한 지시체를 가리킬 수 없었던 것이다. 한편 써얼도, 지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마르코 폴로가 가진 원주민과는 다른 지향적 상태의 그들과 특수 문화적 배경이 원주민의 지향적 내용과는 다른 지향적 내용을 갖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설명은 삶의 형식이 달랐기 때문에 지시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설명 방식과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된다.<sup>43)</sup>

크립키는 기술론에 대한 자신의 비판은 사소한 기술적 오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 입장에 대한 비판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름이 기술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시체를 지시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고유 명사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그림’으로서의 지시 인과론을 제시한 것이다. 지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의 다른 사람들, 그리고 이름이 우리에게 이르게 되는 역사 등과 같은 것에 의해 결정된다.<sup>44)</sup> 이러한 인과론은 그 윤락이 단순하면서도 지시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척 매력적으로 보인다.<sup>45)</sup> 그러나 명명식과 지시의 전달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

43) 크립키도 “마다가스카르”나 “산타 클로스” 같은 이름의 지시체가 변화한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 들인다. 그러면서 자신이 강조한 고유 명사의 용법의 현저히 사회적인 성격에 의해 이 현상을 설명해 보려 한다. “우리는 일상 언어에서 다른 화자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이름을 사용한다. 이러한 성격은 일상적으로 화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전달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름을 사용할 것을 의도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마다가스카르”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회적 성격이 어떤 삶을 지시하려는 현재의 의도가 원래의 용법에로의 먼 고리를 암도하게끔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보다 정밀하게 말하려면 지금까지 자신이 발전시킨 것보다 더 많은 이론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Kripke(1980),p.163.

\* 하아크는 버지(Burge)가 제시한 동명이인(同名異人)의 문제 [Burge(1973),p.438.] 도 크립키류의 지시론에 심각한 난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동명이인의 경우에는 인과의 고리가 누구에게 연결되는지 분명하지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크립키는, 실제로 있어서 고유 명사가 포함된 문장을 사용할 때 그 고유 명사의 지시체로 의도된 것이 무엇인가는 맥락(context)으로부터 분명하기 때문에 동명이인의 지시가 어려움없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Kripke(1980),pp.7-9.] 그리고 데비트도 동명이인을 지시하는 각 고유 명사에 대한 화자의 ‘능력’은 차이가 나며, 그 차이나는 능력과 대상이 인과적으로 적절히 연결되어 올바른 지시가 가능하다고 한다. Devitt(1981),p.34.

44) 퍼트남은 크립키의 이론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고유 명사의 쓰임이 ‘인과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collective)’이라는 것이라고 한다. 지시하기 위해 고유 명사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떤 의미로, 그 이름의 담지자와 ‘접촉(contact)’을 가진 어떤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것이다. [Putnam(1973b), p.203.]

45) 예를 들어 크립키로부터 시작해서 발전한 지시 인과론은 기술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밀의 지시론의 제시한 문제(-본 논문 I장에서의 ①, ②,

하고, 또 “마다가스카르”나 “산타 클로스”같은 이름들의 지시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은 지시 인과론의 중대한 결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다. 그래서 크립키가 제시한 ‘그림’을 보다 완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보완적인 요소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요소는 명명식과 지시 전달의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 언어 현상 전반을 그 근저에서부터 가능하게 해 주는 우리들 삶의 형식에 있어서의 일치와 같은 것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 5. 고유 명사들이 포함된 동일성 진술

크립키는 자신의 가능 세계와 고정 지시어에 관한 이론을 토대로 고유 명사들이 포함된 동일성 진술의 필연성을 주장하고 있다.<sup>46)</sup>

“헤스페러스(Hesperus: The Evening Star)는 포스포러스(Phosphorus: The Morning Star)다.”는 동일성 진술은 예로 들어 보자. 사람들은 저녁때 보이는 어떤 천체를 “헤스페러스”로, 아침에 보이는 어떤 천체를 “포스포러스”로 불렀다. 실제로 헤스페러스와 포스포러스는 두 개의 다른 별로 간주되었다. 우리는 “헤스페러스”와 “포스포러스”라는 고유 명사들을 모든 가능 세계에서 각각 어떤 별을 고정적으로 지시하는 이름으로 사용한다. 그런데 우리는 “헤스페러스”와 “포스포러스”가 실제로는 금성을 가리키는 이름들이라는 것을 결국 알아냈다. 그래서 “헤스페러스”와 “포스포러스”가 현실 세계에서 동일한 물체를 지시하는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가능 세계에서도 그 두 이름으로 동일한 물체를, 즉 금성을 지시한다. 따라서 “헤스페러스는 포스포러스다.”라는 동일성 진술은 모든 가능 세계에서 참인 필연적인 진술이다.<sup>47)</sup>

우리는 헤스페러스와 포스포러스가 각각 저녁과 아침에 보이는 바로 그 위치들에 두 개의 다른 혹성들이 있는 가능 세계를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그 중 최소한 하나가, 또는 둘 다가 헤스페러스가 아닐 것이며, 그러면 그것은 헤스페러스가 포스포러스가 아닌 상황이 아니다. 저녁때 이 위치에서 보인 혹성이 아침에 이 위치에서 보인 혹성이 아닌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헤스페러스가 포스포러스가 아닌 상황이 아니

③)도 역시 해결한다. ①)지시는 인과의 고리에 의해 결정되며, ③) 존재 진술은 적절한 인과의 고리를 통해 연결되는 지시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부정 존재 진술은 그러한 고리가 연결되는 지시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각각 분석적 참도 논리적 모순도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과론의 입장에서 ②) 동일성 진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는 다음 절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46) 어떤 철학자들은 동일성의 문제를 이름과 이름 사이의 관계로 간주한다. 그러나 크립키는 동일성이란 어떤 것과 그것 자체 사이의 관계로 여겨져야 한다고 본다.

Kripke(1980),pp.107-8.

47) Kripke(1980),p.104..

그런데 불분명한 점이 있다. “헤스페러스는 포스포러스다.”에서, 만약 금성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여서 헤스페러스도, 포스포러스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진술에 어떤 진리값이 부여 될지는 말하기 어렵다. [Schwartz(1977),p.24.] 크립키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Kripke(1980),p.110.]

다. 또한, 만약 사람들이 이런 혹성들에 “헤스페러스”와 “포스포러스”라는 이름을 붙였다면, 헤스페러스가 아닌 어떤 혹성이 “헤스페러스”라 불리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것이 헤스페러스 자체가 포스포러스가 아닌 상황은 아니다.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위와 같은 동일성 진술이 단지 우연적으로 참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크립키는 고유 명사들을 포함한 동일성 진술이 현실 세계에서 참이어서 동일한 대상을 지시한다면, 고정 지시어인 그것들은 모든 가능 세계에서 동일한 대상을 지시할 것 이고 따라서 그 동일성 진술은 필연적으로 참이라고 한다. 철학자들이 동일성 진술을 우연적이라고 본 것은 그것이 분석적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크립키도 물론 분석적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가 보여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개념 분석을 통해 그것을 선형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일단 그 동일성 진술이 참임이 경험적으로 확인되면 그것은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크립키는 칸트와는 다른 각도에서 필연적 종합 진술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크립키는 본 논문 I 장 1절에서 제기된 동일성 진술의 문제를 프레게나 러셀과 같은 기술주의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즉 “헤스페러스는 포스포러스다.”는 진술은 “헤스페러스는 헤스페러스다.”와는 달리 우리가 경험적으로 확인해야만 그 참임을 주장할 수 있는 필연적 진리다. 따라서 전자의 동일성 진술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 획득한 진리이기 때문에 후자와 같이 선형적으로 알 수 있는 동어반복적 진리와는 그 인식적 값어치가 다른 것이다.

크립키의 지시 인과론의 노선을 따르는 데비트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동일성 진술의 문제를 해결한다. “헤스페러스”라는 이름의 밑에 깔린 인과 고리와 그것들이 얹힌 인과 그물(causal network)이 “포스포러스”란 이름의 밑에 깔린 인과 고리와 그것들이 얹힌 인과 고리와 또 그물과 다르기 때문에 “헤스페러스는 포스포러스다.”라는 진술은 “헤스페러스는 헤스페러스다.”라는 진술과 그 인식적 값어치가 다르게 된다고 한다.<sup>48)</sup>

그런데 동일성 진술의 필연성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문제가 있다. 우리는 “우송(友松)은 김태길이다.”라는 동일성 진술이 참임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김태길 교수를 찾아가서 그의 호(號)가 우송인지의 여부를 직접 질문해 보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동일성 진술의 참임의 여부가 언제나 이렇게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한 천문학자가 최근 개발된 망원경으로 지구로부터 9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별을 발견하고 “마루치”란 이름을 붙인다고 하자.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소련의 어떤 학자도 9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어떤 별을 보고 “아라치”란 이름을 붙인다고 해 보자. 또 이 두 천문학자가 함께 만나 자신들이 발견한 별들에 관해 이야기를 하다가 그 별들이 하나의 같은 별이라는 결론을 내린다고 하자. 그러면 크립키라면 “마루치는 아라치다.”는 필연적인 동일성 진술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몇년 후 미국 천문학자가 사용한 망원경의 설계에 이론적 결함이 있어서 그가 발견한 별이 실제로는 8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다른 별이었다는 것이 밝혀진다고 해 보자. 그렇다면 “마루치는 아라치다.”는 참이 아니며, 이 동일성 진술이 필연적으로 참이라는 주장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크립키는

### 이 경우에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대상에 대한 동일성 진술이 필연적이라는 것은 의심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이 어떤 이론을 이용한 기계 장치가 동원되어야 확인되는 대상에 대한 고유 명사들이 포함된 동일성 진술의 필연성은, 기계 설계에 사용된 이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확신할 수 없는 한, 주장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필자로서는 고유 명사들이 포함된 진술이 필연적인 경우는 크립키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크립키는 “마루치가 아라치라면, ‘마루치는 아라치다.’라는 진술은 필연적으로 참”이라는 방식으로도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있다. 여기서 크립키는 마루치가 아라치가 아닌 경우는 그 진술이 필연적으로 참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주장은 실제로는 답변을 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비판자들은 그들의 논점을 더욱 가혹하게 해서 크립키를 비판할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 우송은 실제로는 김태길 교수가 아니라 윤명로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전능한 악마가 모든 사람들을 그때 그 때마다 기만하여 “우송은 김태길 교수다.”라고 믿게 하는 등 고유 명사들이 포함된 모든 동일성 진술이 실제로는 거짓인데 참이라고 믿게끔 만들었다고 하자.<sup>49)</sup> 이런 경우에도 크립키는 “그래도 만약 그 동일성 진술이 참이라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참이다.”라고 주장할 것인가? 물론 그 주장은 옳다. 그리고 크립키가 고유 명사들이 포함된 진술이 경험적이면서도 필연적인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준 것은 하나의 중대한 공헌이라고도 생각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라면 그 주장은 특별히 말할 필요가 없는 사소한 주장이다. 참인 진술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이 참이라면 필연적으로 참”이라고 이야기해 보았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심스럽다.<sup>50)</sup>

실제로 필자는, 크립키의 고정 지시어에 대한 견해와 가능 세계의 개념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사용하는 고유 명사들이 포함된 동일성 진술의 어떤 것들은 크립키의 말대로 필연적으로 참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필자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인 감각을 사용하는 대개의 경우라면 대상을 올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외에 결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는 어떤 이론적 장치의 도움으로 대상으로 확인하는 경우 등의<sup>51)</sup> 동일성 진술의 경우에는 그것이 필연적 진리임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때 비판을 피하기 위해 “만약 P가 참이라면, P는 필연적으로 참”이라는 식의 답변을 한다면, 그것은 단지 비판을 피하기 위한 사소한 방편이라는 것이 필자가 ‘전능한 악마’의 가정을 끌어들여 보여 주고자 한 점이다.

49) 이런 데카르트식의 회의(懷疑)는 II장 2절에서 살펴 볼 이론 진술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50) 절대적인 인식 능력을 갖지 못한 우리 인간으로서는, 엄밀히는 모든 동일성 진술의 참됨을 하나 하나 의심할 수 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것이 참이라면, 필연적으로 참이다.’와 같이 아무도 반대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일까?

51) “마루치는 아라치다.”와 같이 자연 과학 이론이 개입하는 경우뿐 아니라, “키케로는 털리다.”와 같이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고 단지 간접적인 자료들을 통해 그들이 같은 대상임을 추측하는 경우 등도 어느 정도 이에 해당될 것이다.

엄밀히 말해 크립키가 고유 명사들이 포함된 동일성 진술들에 대해 밝혀 놓은 것은, 그러한 진술들이 경험적이면서도 필연적인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준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진리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 것이다.

## II. 자연종 명사의 지시

크립키는 고유 명사의 작동 방식에 대한 자신의 통찰을 자연종 명사<sup>52)</sup>의 경우에까지 확장한다. 그래서 그에 의하면 자연종 명사도 고유 명사와 같이 모든 가능 세계에서 동일한 종(種)을 고정적으로 지시한다.

### 1. 자연종 명사의 고정적 지시

칸트에 있어서 분석 판단이란 술어의 개념이 주어의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판단의 진위가 경험으로부터 독립해서(즉 선형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그는 분석 판단의 예로 “금은 노란 금속이다.”라는 진술을 들었다. 여기서 칸트는 ‘노란 금속임’이 “금”的 개념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그래서 그는, 우리는 금이 노란 금속이라는 것을 “금”的 개념을 분석하기만 하면 선형적으로 알 수 있으며,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발견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크립키는 이와 같은 칸트의 견해에 반대한다. 먼저 무엇이 금속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곤란하다고 한다. 현상적 특성 또는 주기율표에 의한 구분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이에는 관련된 어려운 문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보다 중요한 것은 금이 노랗다는 것이 “금”的 개념의 일부인가 하는 것이다. 남아프리카나 러시아와 그밖에 금광이 흔한 다른 지역에서 기후의 특이한 성질로 인해 착시(錯視)가 유행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래서 이것이 금을 노랗게 보이게끔 했다고 해 보자. 그러나 기후의 특이한 성질이 없어지면 금이 우리에게 파랗게 보인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이럴 경우 우리는 금이 없다고 이야기하게 될까? 그렇지 않다. 파랗다고 해서 금이 아닌 것이 아니라, 금은 실제로는 파랗지만 지금까지 노랗다고 여겨졌다는 식으로 말하게 될 것이다. 파랗더라도 금은 금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사물의 종은 어떤 확인하는 특성들(identifying marks)을 갖는다고 생각되었지만 그런 특성들 중의 어떤 것들은 실제로는 금에 대해 참이 아닐 수 있다. 또 한편, 우리가 일상적으로 금을 확인하는 특성들을 모두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금이 아닌 것들도 있다.<sup>53)</sup> 예를 들어 황동왕이나 황철왕이 그런 것들이다.

52) 일반 명사 중에서 어떤 어떠한 것이 자연종 명사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 분명한 일치가 없고, 단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종’을 지시하는 정도로만 의견의 접근을 보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크립키가 예로 든 자연종들에 대한 지시의 문제만을 다루기로 한다.

53) Kripke(1980),pp.117-8.

다른 예를 하나 더 살펴 보자. 우리는 사전에서 말하는 호랑이의 외양적 특성을 다 갖추었더라도 그것이 실제로는 호랑이와는 전혀 다른 내적 구조를 가진 동물을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포유류가 아니라 파충류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그 동물은 호랑이가 아니다. 왜냐하면 비록 외적 특성은 같아도 우리가 “호랑이”라고 부르는 종과 같은 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어떤 착시 현상에 의해 호랑이가 실제로는 세 발밖에 없는 것을 지금까지 네 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왔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착시 현상이 없어져서 그것들이 세 발만을 가진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호랑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까? 아니다. 우리는 “호랑이는 실제로는 세 발만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호랑이의 모든 외적 속성들을 가져도 호랑이가 아닐 수 있고, 반면에 실제로 이런 속성들을 하나도 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호랑이일 수 있다. 즉 호랑이를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속성들을 소유한 것이 호랑이라는 종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도 충분 조건도 아니다.

그런데 크립키에 의하면 우리는, 다른 종에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 금의 경우에도 그것들을 일상적으로 확인하는 특성들에 더하여 금에 대해 참인 어떤 속성을 발견했다.<sup>54)</sup> 금이 어떤 필연적 속성을 갖고 있든지 그것은 과학적 연구에 의해 알려진다. 그리고 현대 과학 이론은, 어떤 물질이 금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가려 주는 것은 그 물질의 원자 구조이고 금은 원자 번호 79인 원소라고 말해 준다.<sup>55)</sup> 그래서 아무리 다른 속성이 금과 유사하더라도 그것이 원자 번호 79인 원소가 아니라면 금이 아니다. 이 물질이 무엇이다라는 것에 대한 과학적 발견들을 표현하는 진술들은 우연적 진리가 아니라 필연적 진리다. 그러므로 과학이 제공하는 금의 속성들을 갖지 않는 물질을 상상하는 세계는 금이 아닌 다른 물질을 상상하는 세계일 뿐이다. “금”은 모든 가능 세계에서 원자 번호 79인 원소를 고정적으로 지시한다.

크립키는 자연 과학이 밝혀 주는 미시 구조를 통해 자연종 명사의 지시체를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다. 금은 그것의 원자 구조로, 호랑이<sup>56)</sup>는 그것의 DNA 구조로, 그리고 물은 분자 구조인 H<sub>2</sub>O로 그것들의 지시체를 확인한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종의 외부적인 속성들은 모두 우연적인데 자연 과학이 밝혀 주는 미시 구조의 특성은 그 자연종에 필연적인 속성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의문시된다. 예를 들어 금이 노란 빛깔을 띠게 되는 원인은 그것이 가진 미시 구조의 속성상 헷빛의 노란색의 파장에 해당되는 부분만을 반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것도 필연적인 속성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여하튼 금이 노란색이라는 사실로부터는 금의 미시 구조에 대한 속성을 알아낼 수 있지만, 금의 미시 구조로부터는 헷빛의 노란색 부분을 반사시킨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면, 금의 미시 구조의 특성이 보다 근본적인 속성이라는 점은 인정해야 하겠다. 하지

54) Kripke(1980),p.119.

55) Kripke(1980),p.123.

56) 크립키가 호랑이의 DNA구조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적은 없다. 그러나 크립키와 유사한 견해를 가진 페트남은 예를 들어 테몬의 DNA를 언급하고 있다. 크립키도 호랑이의 지시체는 그것의 DNA구조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리라 본다.

만 그렇다고 해도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과연 자연 과학이 제공하는 속성들은 확실히 믿을 만한 것들이어서 그것들을 통해 자연종 명사의 지시체를 안심하고 분명히 결정할 수 있는가? 필자로서는, 이런 주장에 궁정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sup>57)</sup>

한편 크립키는 자연종 명사의 지시체가 고정되고 그 지시가 전달되어 사용되는 방식은 고유 명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한다.<sup>58)</sup> 그는 어떤 물질에 대한 가설적인 명명식을 상정해 본다. 예를 들어 “금”과 같은 자연종 명사의 지시체는 다음과 같은 정의(定義)에 의해 결정된다; ‘금은 저기 있는 것들(items), 아니면 그것들의 대부분에 의해 예화된 실체(substance)이다.’ 일반적으로 식물, 동물, 화학 물질의 종류 등을 나타내는 자연종 명사는 이런 방식으로 그것들의 지시를 고정시킨다; 즉 그것들은 주어진 샘플로써 예화된 종으로 정의된다. 그런 후 종의 이름은 고유 명사의 경우처럼 연쇄적으로 이어져 가는 것으로, 금을 별로 보지 못했거나 전혀 보지 못한 사람들도 그 이름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다.<sup>59)</sup>

자연종에 대한 지시에 있어서도 우리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연결을 갖는다는 것은, 퍼트남에 의하면, 우리 언어 현상의 중요한 측면에 대한 통찰이다. 그리고 이 연결은 그 지시되는 종을 처음으로 명명한 사람에게로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sup>60)</sup> 그런데 문제는 명명자가 샘플을 올바로 선정해서 제대로 명명할 수 있는가에 있다. 예를 들어 금에 대한 명명의 경우, 우리는 황동광이나 황철광도 금의 샘플들 중의 일부로 취해서 “금”的 지시체를 정의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 인간이라면 감각만으로 확인하고서는 진짜 금과 황동광·황철광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 우리는 금이 아닌 황동광·황철광 같은 것도 “금”的 지시체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크립키는, 나중에 황동광과 황철광이 금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원래의 샘플에서 이 두 물질의 샘플들을 제거하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황동광과 황철광이 금과는 다른 물질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는나고 크립키에게 질문할 수 있다. 여기서 크립키는 또다시 자연 과학이 제공하는 금의 본질적 속성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원래의 샘플들에서 원자 번호 79가 아닌 것들은 모두 제거해 버리면 완전한 샘플들을 얻을 것이고, 그러면 그 샘플과 동일한 종류의 물질은 금이라고 할 수 있게 되어 ‘그림’을 완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도 이 ‘그림’은 제대로 된 그림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처음에 샘플들을 사용한 것은 지시체를 결정하기 위해서인데, 온전한 샘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미 결정된 지시체가 가진 어떤 특성이 필요하다는 ‘그림’이 되기 때문이다. 이 ‘그림’은 결국 지시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미 지시체가 결정되어 있어야 한

57)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II장 2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58) Kripke(1980),pp.135-6.

59) 크립키는 이러한 설명에는 많은 인위성이 개재되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어느 것들(items)이 최초의 샘플을 구성하는지는 말하기 어렵다. 금은 다양한 시대에 여러 사람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발견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복잡한 맥락이 있는 경우에도 이 설명의 구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Kripke(1980),p.139.각주 70.

60) 지시 전달의 과정에 대한 크립키의 설명이 부족하고, 그래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미 I장 4절에서 지적되었다. 그러나 우리 언어 사용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크립키가 말한 대로의 지시의 전달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다고 보인다.

다는 셈이 된다. 그래서 필자로서는 크립키가 제시한 자연종 명사의 명명식에 관한 ‘그림’은 올바른 것으로서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고유 명사의 지시체를 고정하기 위해 어떤 특정한 개체에 대한 명명을 수행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별 어려움이 없다. 우리는 예를 들어 갓난 아이를 직접 보고 그 아이를 가리키면서 명명하면 되기 때문이다.<sup>61)</sup>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명명식의 상황에서 그 아이를 감각적으로 확인하고 그 아이가 명명된다는 것을 문제없이 알아차릴 정도의 인식 능력과 삶의 형식은 구비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종 명사의 지시를 결정하기 위해 샘플들을 사용하는 경우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크립키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듯이, 우리는 감각적으로 확인하는 어떤 물질의 외부적 속성만으로는 그것이 금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 우리의 시력은 그 물질의 원자 구조를 직접 보고 그것이 금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되어 있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하자면 자연종 명사의 경우에는 “금”이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금과 잘 맞물리지가 않는 것이다. 여기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감각적 능력을 포함한) 인식 구조의 어쩔 수 없는 한계때문에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크립키가 말한 것처럼 외부적 특성이 대충 비슷한 샘플들로써 “금”의 지시체를 결정하고 나중에 진짜 금이 아닌 것은 샘플에서 제외시키는 그림을 제시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받아들일 수 없는 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크립키는 자연종 명사의 지시를 결정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방금 살펴 본 샘플을 이용하는 ‘그림’으로, 그 그림의 문제점은 위에서 지적하였다. 또 하나의 방법은 자연종의 본질적 특성을 통해서, 즉 그것의 미시 구조를 통해서 지시체를 결정하는 것이다.<sup>62)</sup> 이 방법 또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을 다음 절의 이론 진술의 필연성 여부에 관한 논의를 통해 밝혀 보고자 한다. 과학이 말해 주는 미시 구조라는 것이 그 종에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미시 구조를 통한 지시도 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2. 자연종 명사가 포함된 이론 진술

고유 명사간의 동일성 진술의 필연성을 주장한 크립키는 나아가 자연종 명사가 포함된 이론 진술의 필연성까지도 주장한다. 크립키 자신이 든 예들을 살펴보며 그 주장의 타당성

61) 그러나 감각을 통한 직접적 지시로써가 아니라 “해왕성”같이 기술로 그 지시체를 고정시키는 경우는 물론 예외가 되겠다. 또한 감각을 통하여라도 I장 5절에서 든 “마루치”같이 복잡한 가설적 이론이 들어간 기계 장치를 이용해 대상을 확인하는 경우도 직접적 지시로 개체를 고정시키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주저됨이 있다.

62) 한편 크립키는 미시 구조를 통한 지시는 속성(또는 그것의 언어적 표현인 기술)을 통한 지시가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크립키의 말대로 외부적 특징들을 통한 지시는 모두 우연적 속성을 통한 지시이며, 따라서 올바른 지시가 될 수 없다고 일단 인정해 보자. 그러나 그가 필연적이라고 주장하는 미시 구조적 특성을 통한 지시는 마치 속성을 통한 지시가 아닌 직접적 지시라는 식으로 말하는 데는 찬성할 수 없다. 본질적 속성을 통한 지시도 속성을 통한 지시인 것이다.

을 검토해 보자.

우리는 뜨거움이라는 감각을 일으키는 열이라는 현상이 어떤 물리적 현상인지를 선험적으로 알 수는 없다. 그런데 우리와는 다른 감각 기관을 가진 생명체가 있다면 그는 우리가 뜨거움이라는 감각을 느끼게 되는 열이라는 현상에 대해 반대로 차갑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열이라는 현상에 대해 뜨겁다고 느끼는 것은 단지 우연적인 일일 뿐이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열이라는 현상이 분자들의 운동이라는 것을 결국 발견했다. 이로써 우리는 분자들의 운동이 열이라는 현상의 본질적 속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열은 분자 운동이기 때문에, 그 현상은 모든 가능 세계에서 분자 운동이 아닐 수 없다. 일단 과학에 의해 열이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임이 밝혀지면 우리는 열이 분자 운동이 아닌 상황은 상상할 수 없다. 열이 분자 운동임은 필연적인 것이다. 한편 우리가 원래 뜨거운 감각을 일으킨다는 속성으로 열을 확인한 것은 단지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는 우연적 속성에 의해서 확인한 것일 뿐이다.<sup>63)</sup>

한편 크립키는, 어떤 과학자들은 열을 분자 운동에 관한 이론으로가 아니라 칼로릭 이론으로 설명했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 칼로릭 이론이 옳다고 판명되었다면, 열은 분자 운동이 아니라 뜨거운 물체를 채우고 있는 “칼로릭”이라는 물질이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과학은 결국 열이 분자 운동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그래서 어떤 이론이 옳고 어떤 이론이 그른가를 밝히는 것은 논리적 필연성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의 진행 과정의 문제라고 한다.<sup>64)</sup>

크립키는 자연 과학이 열의 본질적 속성이 분자들의 운동임을 밝혀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열의 본질적 속성이 분자 운동임으로 분자 운동이 아닌 것은 열이 아니며, 따라서 열이 분자 운동이 아닌 가능 세계는 있을 수 없다고 한다. 또한 모든 가능 세계에서 열은 분자 운동임으로 “열은 분자 운동이다.”라는 진술은 필연적으로 참인 진술이다.

크립키의 가능 세계에 대한 생각을 인정해 준다는 가정 아래라면, 분자 운동이 열의 본질적 속성다면 열이 분자 운동임은 모든 가능 세계에서 필연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열의 본질적 속성이 분자들의 운동임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이다. 자연 과학은 열이 분자들의 운동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연 과학이 열의 본질적 속성을 밝혀낼 수 있고 또 그래서 그 이론 진술에 필연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가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한편 페트남이 지적하고 있듯이, 열은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라는 주장은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다.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의 경우에는 열은 분자 운동 에너지이다.<sup>65)</sup> 그러나 열의 개념은 예를 들어 방사(radiation)로까지 확장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가정적인 상황에 적용됨에 있어서 얼마나 더 확장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sup>66)</sup> 이와 같이 크립키가 신뢰하는 자연 과학이 “열은 분자 운동이다.”라는 진술이 모든 경우에 참은 아니라는 것을 이미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63) Kripke(1980),p.133.

64) Kripke(1971),p.76.

65) 페트남은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듯하다.

66) Putnam(1983),p.63.

“금은 원자 번호 79를 갖는다.”는 이론 진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크립키는 원자 구조를 연구한 현대의 과학 이론은 금이 원자 번호 79를 가졌다는 것은 금의 본성(nature)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한다. 그러므로 금이 원자 번호 79를 가졌다는 것은 필연적이고 우연적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우리는 현대 자연 과학이 그렇게 본성을 밝히고 필연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한편 크립키는 우리의 과학 이론이 틀려서 금은 원자 번호 79를 갖지 않는다고 밝혀질 수도 있다고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이 원자 번호 79를 갖는다면, 원자 번호 79를 갖지 않는 것은 금일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sup>67)</sup> 즉, 금이 원자 번호 79를 갖는다면, 금은 모든 가능 세계에서 필연적으로 원자 번호 79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주장에 대해서는 I 장 5절에서 이미 살펴 본 바 있다. 우리가 자연 과학이 제공하는 이론 진술의 형이상학적 필연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 진술이 우리 세계에서 정말로 참인지를 확신하기가, 유한한 인식 능력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아무래도 주저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크립키가 인정하고 있는 금의 미시 구조에 대한 설명의 오류 가능성뿐만 아니라 개개의 모든 이론 진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크립키는, 자신도 인정하고 있는 오류 가능한 자연 과학적 작업의 결과로 나온 이론 진술의 형이상학적 필연성을 주장하다가도, 현실 세계에서의 그 진술 자체의 타당성을 의심하는 비판자에게는 자신의 주장은 단지 ‘그것이 참이라면 필연적으로 참’이라는 것일 뿐이라는 식으로 대답하곤 한다. 그러나 이런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다. 인식 능력이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개개의 모든 이론 진술의 절대적 타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크립키가 그때 그때마다 “그것이 참이라면 필연적으로 참이다.”고 말해 보았자 우리에게 특별히 알려 주는 내용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크립키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답변밖에 할 수 없다면, 그는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참일 가능성이 있는 이론 진술들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지 정말로 필연적으로 참인 이론 진술들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sup>68)</sup>

“물은 H<sub>2</sub>O이다.”라는 이론 진술에도 지금까지의 비판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크립키 자신도 거론하고 있는 문제점이 더해질 수 있다. 크립키에 의하면 물은 본질적으로 H<sub>2</sub>O라는 화학적 구조를 가지며, 따라서 화학적 구조가 H<sub>2</sub>O인 것은 모두 물이며, H<sub>2</sub>O가 아닌 것은 아무리 외양이 비슷하다고 해도 물이 아니다. 즉 화학 구조가 H<sub>2</sub>O인 것은 어떤 물질이 물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런데 최근 소련에서 발견된 폴리워터(poly water)는 화학적 구조는 H<sub>2</sub>O이지만 끓는 점이 섭씨 영하 40도인 등 다른 특성은 모두 물과 다르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 폴리워터를 물로 보아야 하는가? 크립키는 화학적

67) Kripke(1980), p.125.

68) 앞의 I 장 5절에서 살펴 본 것처럼, 어떤 진술은 크립키의 주장처럼 경험적이면서도 필연적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우송은 김태길이다.”와 같이 우리가 그 지시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동일성 진술이 그런 것들일 것이다. 그러나 이론 진술들은, 그가 절대적으로 그 참됨을 확신하고 주장할 수 있는 진술이 실제로는 하나도 없는 이상, 경험적이면서도 필연적인 진술들의 예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그것들은 단지 그런 진리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진술들일 뿐이다.

구조가 같으므로 폴리워터도 물이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드시 화학 구조만이 물을 물이게끔 해 준다고는 말할 수 없다. 국민학생들도 물은 섭씨 100도에서 끓는다는 것을 안다. 섭씨 100도라는 것도 원래 물이 끓는 온도를 기준으로 정의된 것이다. 그런데도 영하 40도에서 끓는 액체를 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폴리워터를 “워터”라고 하지 않고 “폴리워터”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 경우에 우리는 물을 물이게끔 해 주는 것이 반드시 화학 구조인  $H_2O$ 가 아닐 수도 있음을 암시받을 수 있다고 보인다.<sup>69)</sup>

한편, 퍼트남은 분자 구조가  $H_2O$ 가 아니더라도 물이라고 해야 할 경우들을 지적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물은  $H_2O$ 다.”라는 진술이 모든 가능 세계에서 참이라는 크립키의 주장은 너무 강하다. 물이 오직  $H_2O$ 의 분자 형태로만 존재하는 가능 세계를 생각해 보자. 물론 크립키는 이 예가 적합하지 않다고 거부할 것이다. 그런데 “물은  $H_2O$ 이다.”라는 진술은 실제 세계에서 조차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다. 왜냐하면  $H_4O_2$ ,  $H_6O_3$  같은 분자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크립키의 이론은 실제 세계에서의 물의 구성(composition)은 모든 가능 세계에서의 물의 구성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퍼트남은 가령, 비록  $H_2O$ 이 실제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더라도, 어떤 가능 세계에서  $H_2O$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세계의 물과 유사한 속성들을 가진 물질을 우리는 “물”이라고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sup>70)</sup> 따라서  $H_2O$ 만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주장이 될 것이다.

위에서 본 여러 사례들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크립키가 주장하는 이론 진술의 필연성에 대한 논의를 정리해 보자.

크립키에 있어서, 어떤 대상의 본질<sup>71)</sup>이란 그 대상이 존재하는 모든 가능 세계에서 그것이 갖는 필연적인 성질이다. 그런데 과학은 어떤 대상의 기초적인 구조적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그것의 본성(nature)을, 즉 철학적 의미에 있어서의 본질을 발견해 내고자 시도한다. 그래서 과학에서 사용하는 속성 동일서의 유형(the type of property identity)은 필연성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72)</sup> 물리적 필연성은 단적인(tout court) 필연성인 것이다<sup>73)</sup>.

크립키가 주장하는 것은, 과학이 필연적인 진리를 발견하며 사물의 본질을 발견한다는 오래된 생각이 중요한 의미에서 옳다는 것이다.<sup>74)</sup> 그러나 자연 과학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으며, 또 동시대라도 여러 이론이 대립했던 적도 있다. 그리고 미래의 과학은 아마도

69) Kripke(1980),p.123.

70) 필자의 지적이 옳다면,  $H_2O$ 라는 분자 구조는 어떤 물질이 물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니다.

71) Putnam(1983b),p.63. 여기서는  $H_2O$ 라는 분자 구조가 어떤 물질이 물이기 위한 필요 조건도 아니게 된다.

72) 크립키는 어떤 대상의 본질의 예로서 그 대상의 기원(origin), 그것이 만들어진 물질(substance), 그리고 과학이 밝혀내는 기초적인 내적 구조를 들고 있다. 이 중에서 기원과 물질의 문제는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하는 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기원과 물질의 문제를 포함하는 본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본고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73) Kripke(1980),p.138.

74) Kripke(1980),p.99,164.

75) Putnam(1983b),p.55.

지금의 과학과는 다를 것이다. 그런데도 유독 현재의 특정한 자연 과학이 밝혀 주는 내용들만을 필연적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실제로 크립키가 예로 든 이론 진술들이 반드시 참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음을 우리는 앞에서 열과 물의 경우들에서 살펴 보았다.

### 맺 음 말

우리 언어에서 세계와 가장 직접적으로 만난다고 생각되는 고유 명사의 지시가 고정적이라는 크립키의 통찰은 언어와 세계의 관계를 조명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었다. 크립키의 말대로 고유 명사는 동일한 대상을 그것이 존재하는 모든 가능 세계에서 고정적으로 지시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지시가 이루어지는 작동 방식은 기본적으로 크립키가 보여 주는 인과적 '그림'에 의한다고도 생각된다. 그런데 그의 그림은 그 자체로 순수히 인과적이지는 않을 뿐더러, 여러 가지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들에 직면한다. 그래서 명명식과 지시의 전달 과정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고 지시 변화 등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시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언제나 우리 인간의 삶의 형식의 일치와 같은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는 점을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크립키는 고유 명사의 지시에 관한 그의 통찰을 자연종 명사의 지시에까지 적용시킨다. 그는 자연종 명사의 지시도 관련 기술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자연종 명사는 과학이 밝혀낸 미시 구조를 가진 종을 고정적으로 지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연 과학이 밝혀낸 미시 구조에 대한 내용도 외부적 특성들과 마찬가지로 기술이다. 그러므로 크립키가 기술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시한다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기술을 통한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자연 과학의 작업은 오류 가능하며, 따라서 그것이 보여 주는 미시 구조에 대한 내용들이 절대적으로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패러다임들을 통한 지시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본문에서 여러 번 지적되었다. 이런 이유들때문에 자연종 명사의 지시는 현실 세계에서 확정적이지 못하며, 따라서 모든 가능 세계에서의 고정적 지시는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유 명사의 지시에 관한 크립키의 통찰은 몇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옳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런 통찰이 왜 자연종 명사의 지시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일까? 필자가 보기에는, 이에 대한 해답은 우리 인간의 인식 구조의 어떤 특징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대개의 경우 고유 명사는 감각적 확인을 통한 직접적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 고유 명사의 담지자는 이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감각적으로 확인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 예를 들어 아무리 일관성 쌍동이라도 그 부모는 혼란없이 구별하고 각각의 이름을 붙이며, 다른 사람들은 필요할 경우 그 부모들의 도움으로라도 그 지시체를 올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각적 능력과 지시 행위와 관련된 그들의 공통된 삶의 형식에 의해 최초의 명명식이 별 문제없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 후에는 크립키의 또 하나의 중요한 통찰인 '공동체내에서의' 인과적 연결을 통해 지시가 전달되고, 다른 사람들은 이 인과적

고리가 명명된 개체와 적절히 연결되어 있으면 지시체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도 그 이름으로 올바른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연종 명사의 경우에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눈으로 “금”의 지시체를 확인할 수 없다. 우리의 시각은 금과 황동광을 구별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발달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크립키는 금의 미시 구조를 통해 지시체를 확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미시 구조를 탐구하는 이론적 작업은 각 이론마다 그 내용이 다르며 또 그 내용은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따라서 지시 전달의 연결 고리가 아무리 적절히 잘 되어 있더라도 그 고리의 맨 끝부분이 대상과 잘 물리지 않은 채로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부터, 필자로서는 자연종 명사의 지시체가 크립키의 주장처럼 확정적이고 따라서 고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고유 명사의 지시체를 고정시킬 때의 감각 능력도 실제로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대상을 다른 대상과 구별할 수 있을 만큼은 그 능력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아주 오랜 옛날부터 고유 명사의 명명 대상에 대한 감각적 확인과 지시의 고정은 아무런 문제도 없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자연종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것이, 예를 들어 지금도 과학의 변화에 따라 생물의 종이 재분류되고 물질의 새로운 구조를 찾아내는 등 많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sup>76)</sup>

지시 대상을 확인하고 고정시켜 주는 인간의 인식 능력은 위의 두 경우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그래서 크립키가 고유 명사의 지시에 관한 논의를 자연종 명사의 경우에까지 확장시켰을 때 부딪히게 되는 많은 난점들은 근본적으로 각각의 지시체의 특성과 관련된 우리의 인식 능력에 있어서의 차이에 대한 무시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 참고 문헌

- Allood,et al.(1977), *Logic in Linguistics*, Cambridge Univ.Press.
- Austin,J.L.(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Harvard Univ. Press.
- Burge,T.(1973), "Preference and Proper Names", in *The Journal of Philosophy*, Vol.70.1973..
- Copi,I.(1954). "Essence and Accident", in Schwartz(1977).
- Davidson,D.and Harman,G(1972), *Semantics of Natural Language*, D,Reidel Publishing Company.
- Devitt,M.(1974), "Singular Terms", in *The Journal of Philosophy*, Vol.71.1974.
- Devitt,M.(1984). *Designation*, Basil Blackwell.
- Donnellan,K.S.(1966), "Reference and Definite Description", in Schwartz(1977).
- Donnellan,K.S.(1972), "Proper Names and Identifying Descriptions", in Davidson

76) 고유 명사의 지시체와 자연종 명사의 지시체를 확인하는 인간의 인식 능력에 왜 그런 차이가 있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는 본 논문의 주제와는 거리가 있는 많은 양의 새로운 논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단지 실제로 그런 차이가 있음을 사실적으로 확인하는 정도로만 만족하기로 한다.

and Harman(1972).

- Donnellan,K.S.(1974), "Speaking of Nothing", in Schwartz(1977).
- Donnellan,K.S.(1983), "Kripke and Putnam on Natural Kind Terms" in Ginet,C. and Schoemaker,S.(1983)
- Evans,G.(1973), "The Causal Theory of Names", in Schwartz(1977).
- Frege,G.(1892), "On Sense and Reference", 한국철학회 분석철학분과연구회편(1977).
- Ginet,C, and Schoemaker,S.(eds.)(1983), *Knowledge and Mind*, Oxford Univ.Press.
- Haack,S.(1979), *Philosophy of Logics*, Cambridge Univ. Press.
- Kant,I.(1781), *Kritik der Reinen Vernunft*, Felix Meiner.
- Kaplan,D.(1975), "Dthat", in Martinich,A.P.(1985),
- Kripke,S.A.(1959), "A Completeness Theorem in Modal Logic", in *The Journal of Philosophy*, Vol.24,1959.
- Kripke,S.A.(1962),"The Undecidability of Monadic Modal Quantification Theory",in *Zeitschrift für Mathematisch Logik und Grundlagen der Mathematik*,Bd.9,1963.
- Kripke,S.A.(1963a),"Semantical Considerations on Modal Logic", in Linsky(1971).
- Kripke,S.A.(1971), "Identity and Necessity", in Schwartz(1977).
- Kripke,S.A.(1977), "Speaker's Reference and Semantic Reference", in Martinich, A.P.(ed.)(1985).
- Kripke,S.A.(1980), *Namining and Necessity*, Harvard Univ.Press.
- Kripke,S.A.(1982),*Wittgenstein on Rules and Private Language*,Harvard Univ.Press.
- Linsky,L.(ed.)(1971), *Reference and Modality*, Oxford Univ. Press.
- Marciszewski,W.(ed.)(1981), *Dictionary of Logic*, Martinus Nijhoff Publishers.
- Martin,R.M.(1987), *The Meaning of Language*, The MIT Press.
- Martinich,A.P.(ed.)(1985), *The Philosophy of Language*, Oxford Univ. Press.
- McCulloch,G.(1989), *The Game of the Game*, The Clarendon Press.
- Mill,J.S.(1867), *System of Logic*, Longmans.
- Munitz,M.K.(ed.)(1971), *Identity and Individuation*, New York Univ.Press.
- Plantinga,A.(1973), "Transworld Identity or Worldbound Individuals?", in Schwartz(1977),
- Plantinga,A.(1974), *The Nature of Necessity*, Oxford Univ. Press.
- Putnam,H.(1962), "It ain't necessarily so", in Putnam,H.(1975).
- Putnam,H.(1970), "Is Semantics Possible?", in Schwartz(1977).
- Putnam,H.(1973a), "Meaning and Reference", in Schwartz(1977).
- Putnam,H.(1973b), "Explanation and Reference", in Putnam(1975b).
- Putnam,H.(1975a), *Mathematics, Matter and Method*, Cambridge Univ. Press.
- Putnam,H.(1975b), *Mind, Language and Reality*, Cambridge Univ. Press.
- Putnam,H.(1975c), "The Meaning of 'meaning'", in Putnam(1975b).
- Putnam,H.(1978), *Meaning and Reference*, Routledge and Kegan Paul Ltd.

- Putnam,H.(1978a), "Reference and Understanding", in Putnam(1978).
- Putnam,H.(1981), *Reason, Truth and History*, Cambridge Univ. Press.
- Putnam,H.(1983), *Realism and Reason*, Cambridge Univ. Press.
- Putnam,H.(1983a), "Reference and Truth", in Putnam,K.(1983).
- Putnam,H.(1983b), "Possibility and Necessity", in Putnam,H.(1983).
- Putnam,H.(1988), *Representation and Reality*, The MIT Press.
- Quine,W.V.O.(1953), "Reference and Modality", in Linsky(1971).
- Quine,W.V.O.(unknown), "Natural Kinds", in Schwartz(1977).
- Rhees,R.(1986), "Can There Be a Private Language?" in *LUDWIG WITTGENSTEIN*, Vol.2, edited by Shanker,S., 1986, Croom Helm.
- Rosenberg,J.F. and C.Travis(eds.)(1971), *Readings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Prentice Hall.
- Russell,B.(1905), "On Denoting", 한국철학회 분석철학 분과연구회 편(1977).
- Russell,B.(1919), "Descriptions", on Rosenberg,J.F. and Travis,C.(eds.)(1971).
- Salmon,N.(1981), *Reference and Essence*, Princeton Univ.Press.
- Schwartz,S.P.(ed.)(1977), *Naming, Necessity and Natural Kinds*, Cornell Univ. Press.
- Searle,J.(1958), "Proper Names", in Rosenberg,J.F. and Travis,C.(eds.)(1971).
- Searle,J.(1983), *Intentionality*, Cambridge Univ. Press.
- Schoemaker,S.(1984), *Identity, Cause and Mind*, Cambridge Univ. Press.
- Strawson,J.F.(1950), "On Referring", in Rosenberg,J.F. and Travis,C.(eds.)(1971).
- Wittgenstein,L.(1922), *Tractatus Logico Philosophicus*, 정음사, 1985.
- Wittgenstein,L.(1953),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Macmillan.
- 이명현(1983), "Two Aspects of Form of Life", in *Proceedings of the 8th International Wittgenstein Symposium*, 1984.
- 이명현(1984), "삶의 양식의 두 가지 국면", 비트겐슈타인의 이해, 서광사.
- 한국철학회 분석철학 분과연구회 편(1977), *Readings in the Analytic Philosophy*, 서광사.